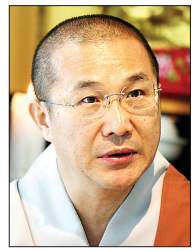


# 출재가자 함께 법문 들으며 하안거 회향

### 수도암, 9월 3일~6일 원순 스님 초청 '어록 릴레이 특별법회'



12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김천 수도암이 산문을 열었다. 하안거 회향을 맞아 수좌스님들과 함께 재가자들을 초대 특별한 법석이 마련된 것이다.

김천 수도암(선원장 원인)이 9월 3일~6일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원순 스님(사진)을 초청해 어록 릴레이 특별법회를 마련했다.

법문의 마지막 날인 9월 6일 수도암 법회 현장에는 스님들과 재가자 50여명이 한치의 미동도 없이 원순 스님의 법문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번 릴레이 법석은 원순 스님이 역해한 <진심직설>과 <신심명>을 교재로 오직 강의와 법문에만 집중했다.

원순 스님은 “<진심직설>은 말 그대로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참마음’을 바로 눈앞에 펼쳐주는 글”이라며 “바른 믿음과 수행법 등 참마음에 관한 15가지 주제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4일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순 스님은 “<신심명>은 부처님의 말씀을 시의 형태를 빌려 풀어낸 주

옥같은 책이다. 읽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책이니 대중에게 어울릴만한 저서”라고 설명했다.

수도암 선원장 원인 스님은 “재가자들이 바른 정진을 이어가려면 바른 법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에 개최한 법석을 통해 바로 배우고, 중도를 지켜 정진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하루 6시간 이상 경전 강의  
전국 불자 50여명 동참 경청  
“열린 법석 꾸준히 마련하고자”

참가한 대중들은 이번 법석이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선원에서 열려 더욱 감개무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승욱 불자는 “원순 스님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너무나 행복했다. 특히 함께 공부했던 스님 중 법랍이 50이 넘는 분이 계셨는데 원순 스님의 책을 예습한 흔적으로 새겨놓게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넘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김천 수도암이 9월 3일~6일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원순 스님을 초청해 출재가자들을 위한 '어록 릴레이 특별법회'를 마련했다.

이갑영 불자는 “일상생활 가운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 마음을 지키며 생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정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또한 수도암은 처음 방문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도암은 재가 불자들을 위해 정기 법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참을 위한 시민선방을 건립할 예정이다.

선원장 원인 스님은 “불교 공부는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통적인 선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울러 재가자들을 위한

교학 강의도 잊지 않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암은 원순 스님을 지도법사로 재가자들을 위한 릴레이 법석을 매년마다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달에 한번 펼쳐지고 있는 경전 강의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불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암은 “앞으로 있을 경전 강의에도 원순 스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며 “스님은 교학 뿐 아니라 실참에서도 뛰어난 분으로 스님과 재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 “종단·지역 그리고 성주사 발전 발원”

### 창원 성주사 9월 6일 주지 원종 스님 진산식

주지 임명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던 창원 성주사가 9월 6일 성주사 대웅전에서 주지 원종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주지 원종 스님은 “승가의 가풍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승풍을 지켜 국가발전, 사회평화, 종단의 발전 및 지역 사회와 성주사의 번영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주사 원종 스님 진산식 개최

법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치사,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직인 전달식, 수불 스님의 격려사, 원종 스님의 취임사 및 내빈들의 축하 인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창원불교연합회 상임고문 원행 스님, 창원불교연합회장 도홍 스님, 안상수 창원시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안홍준, 강기운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성주사 사부대중은 원종 스님과 함께 수행가풍을 계승하고 현대 사회에 알맞게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포교 역량을 훌륭하게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종 스님에게 주지 직인을 전달할 수 불 스님은 “본사와 잘 협조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청정 도량으로 가꾸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원종 스님은 “그 어느때 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고 불사하며 포교를 할 것”이라며 “종단과 교구본사의 발전을 위하여 창원 시민과 경남도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중의 화합을 위해 소통하는 주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원종 스님은 1980년 흥고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강화도 보문사, 제주 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 “戒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사회운동”

### 부산불교연합회, 9월 4일 을사 스님 초청 토론회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계계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사회운동 전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계율을 있어 본질을 지키고 계를 실천 수행하는 것이 곧 사회운동의 답이며 불교 내적 정화에 바탕이 되는 것이다. 불교 수행자가 현재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계를 지키는 것이 타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9월 4일 안국선원 교육관 세미나실에서 ‘팔계계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사회운동 전개 방안’이란 주제로 ‘2015팔계계 을사스님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광사 울주 지현 스님은 “시대적 요구에 따

라 걸모습 및 적용법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부처님이 설하신 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계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내면적 정화 운동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른 수행 정신을 통해 불교의 본질을 회복할 때 지금 부끄러운 불교의 현실도 극복하며 사회운동에 대한 답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수행과 계를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스님은 참가한 재가자들에게 계율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다. 그 부처님이 제시한 계율을 따를 때 부처님의 행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며 “불교 수행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점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계를 지키는 현실과 타협하는 자세로 무슨 지혜를 얻겠느냐”며 불자로서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자로 나선 쌍계사 울원장 해강 스님은 “팔계계가 현대 사회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역류하는 면이 있다”며 “현대인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묘수를 사회 윤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재정립해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이번 토론회가 바로 그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앞으로 많은 울원 스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팔계계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자로 나선 송광사 울원장 대경 스님은 “살림이란 말이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대중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 금련회 회장 상화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호법국장 인수 스님, 전법도량 의장 하림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 울산 종단협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

울산의 스님과 불자 1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참회 수행과 함께 나눔으로 행사를 회향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만초)와 울산불교신도회는 9월 4일~8일 울산 태화강변에서 ‘제 5회 울산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는 참회 기도와 독송, 업장과 과보 드러내기, 마음의 집 내려놓기, 3000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도 기간 동안 모은 동참금은 울산불교회관 건립 기금 조성, 군법당, 포교당 및 각 사찰 어린이 법회, 장학금 등

포교와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회향될 예정이다.

법회에 참석한 김정숙 불자는 “매년마다 참석하면서 끝날 때면 내년을 다시 기대하게 된다”며 “다른 많은 불자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울산 자비법도량 기도는 매년마다 종단을 초월해 울산의 불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 통도사 불교미술사학회, 해외 연구 개시

통도사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지준)가 향후 해외 불교문화 연구기관과 연계해 공동 연구 및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미술사학회는 9월 3일~5일 일본 간사이 지역 불교유적지를 답사했다. 이번 답사는 불교미술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불교미술사학>이 올해 7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더욱 폭 넓은 학술활동을 펼치고자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학회장 지준 스님 및 수석 사 근역성보박물관 관장 정암 스님, 양산

사립박물관 신용철 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10여명이 동참했다.

답사는 ‘나라박물관 하쿠호(白鳳) 특별전’, ‘교토박물관 불교의 동점(東漸) 특별전’ 및 ‘고려미술관’, ‘헤이안시대 정토건축의 백미 조류리지(浄瑠璃寺)’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와 향후 공동 연구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관람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조문(1918~1989) 선생이 설립한 고려미술관을 찾은 미술사학회는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 봄 학술대회에 미술관 관계자를 초청, 특별강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성미 기자**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 나무 암바람함 참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연히 나고 죽음이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중

종일 편저 박춘기 역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 동국대 평생교육원

#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

불교계 유일한 '인성교육지도사' 자격교육과정  
2015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최고 인기강좌

제 2015-003438 인성교육지도사 국가등록 민간자격 취득가능  
2015년 7월 21일부터 국가기관, 학교 의무적 교육시행  
법률 제 13004호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자비명상

법제는 통과되었지만 당장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일선 교사들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당장 지도할 강사도 없으며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성교육 전문가 세분을 모시고 인성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모집대상**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부모, 선생님, 일반인 모두

**교육기간**  
2015년 9월 22일(화) 개강 14~17시(매주 화요일 3시)

**교육예백**  
제 2015-003438호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록비용**  
12주 강좌, 50만원(1박 2일 워크샵 비용별도)

**문의상담**  
등록문의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02)2260-3728~30  
상담문의 : (사)자비명상 02)0682-0260 / http://jurira.net

교수 : 마가스님 (사)자비명상 대표 · TVN '오마이강' 외 다수 방송출연 · '알고보면 권력은' 외 저서 다수

교수 : 황수경 동국대 명상문화 교수 · 미국 AAPC 전문심리치사사 ·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교수 : 박선형 동국대평생교육원 원장 ·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교수 : 최원영 국제인성교육개발원 대표 · KACE 부오리대심리상담사 · 인문학평론가 이은희씨 이사